

새 책

▶나다운 건 내가 정한다(유달리 지음)=낮에는 학교 선생님, 밤에는 글쟁이·그림쟁이로 생활한다는 저자는 작가 소개글에서 “이제야 좀, 나답게 살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그런 그는 잃어버린 ‘나’를 구하는 사람이 오직 자신임을 분명히 한다. 세상이란 거친 파도에 맞서야 하는 멀고 험한 여정이지만 그 길 끝에서 마주하는 ‘마음 레시피’가 반갑다. 마음의숲. 1만3800원.



▶나를 안아줘(자크 프레베르 지음·로남 바텔 그림·박준우 옮김)=프랑스에서 사랑 받는 시인이자 상송 작가의 시화집이다. 그의 작품 중에 ‘사랑’을 노래한 시 20편을 가려 뽑았다. 잔잔한 상송처럼 부드럽고 때론 프렌치 키스처럼 뜨거운 시와 그 곁에 자리한 그림은 한 편의 로맨스 영화 같다.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셰프이자 푸드 칼럼니스트의 번역도 눈길을 끈다. 미디어창비. 1만3000원.



▶너무 사랑하지만 힘든 걸 어떡해(캐런 클리먼 지음·몰리 매킨타이어 그림·임지연 옮김)=초보 엄마들의 복잡한 감정과 두려움을 60개 상황을 통해 드러낸다. 지친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공감과 위로를 건네기 위해서다. 출산 후 겪는 우울과 불안이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강조하며 모두들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다독인다. 한문화. 1만6000원.



▶별레를 봤었다(김지민 지음)=아빠의 가정폭력, 그런 아빠를 이해하라는 엄마의 태도, 주인공 ‘충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똑같은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지만 우연히 잡은 별레에 아빠라는 이름을 붙이고 괴롭히는 모습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본다.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순간, 이 굴레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바람의아이들. 1만1000원.



▶변신·단식 광대(프란츠 카프카 지음, 편역·임홍배 옮김)=한국카프카학회 회장을 지낸 두 교수가 치밀한 번역으로 카프카 작품세계를 안내한다. 책 제목의 작품을 비롯해 ‘선고’, ‘유형지에서’, ‘시골 의사’ 등 노벨문학연구소가 ‘100대 세계문학’으로 선정한 카프카 단편 중 22편을 한데 담았다. 옮긴이들은 작가·작품해설을 더해 카프카에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창비. 1만3000원.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딘 세르자이, 아에샤 세르자이 지음·유진규 옮김)=신경과 전문의인 부부의 저서다. 알츠하이머의 솔루션을 찾아온 이들은 15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 끝에 놀라운 발견을 했다. 생활습관이 알츠하이머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먹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식으로 두뇌를 쉬게 하면 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한다. 부기. 2만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지방재생의 모델’ 산간마을 가미야마

아사히신문 간다 세이지의 ‘마을의 진화’

IT벤처기업 등 잇단 이주 정부지원 보단 진심 전략

일본 도쿠시마현 외곽에 있는 해발 1000m 높이의 산간 마을 가미야마. 이곳에 가면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근 채 무릎 위 컴퓨터로 화상 회의를 하는 프로그래머, 회사 마당에 설치한 해먹에 누워 일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인구 5300명 정도의 과소화마을인 가미야마는 IT 벤처기업 종사자는 물론 해외에서 온 예술가, 아이들을 여유롭게 키우려는 젊은 부부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아사히신문에서 오랜 기간 지역 취재를 맡아온 간다 세이지 기자의 ‘마을의 진화’는 그 부처처럼 ‘산골 마을 가미야마에서 만난 미래’를 다루고 있다. 지역민 100여 명을 심도있게 인터뷰한 르포르타주로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지방재생의 모델로 손꼽히는 가미야마의 오늘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앞서 1990년대 초부터 해외 교류를 시작했고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예술가들을 불러들이고 외국어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일본 마을 특유의 배타적인 분위기를 없앴다. 이를 바탕으로 실리 콘밸리 여명기에 스탠포드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오오미나미라는 마을 사람을 중심으로 NPO법인 ‘그린벨리’가 생겨난다. 그린벨리가 본격적으로 이주 지원에 나서면서 가미야마의 실험이 시작된다.

2008년부터 8년간 마을에 이주한 이들은 91세대 161명이 넘는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여러가지 실험도 벌어졌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힘을 합쳐 농업 생산 법인 푸드허브를 세워 지역 식재료 판매와 공급, 급식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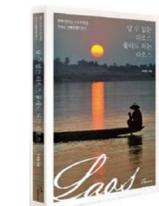
을 주관했다. 공동주택을 건설해 이주자와 마을민들이 살 공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가미야마의 지방재생 철학은 소박하지만 견고하다는 데 있다. 마을 만들기를 이끄는 이들은 지역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우선이다. 그들은 지역과 유리된 채 거액의 정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화려한 전략산업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애썼다. 공공 영역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이를 지켜봤고 필요한 지원은 해주되 간섭은 하지 않았다. 류석진·윤정규·조희정 옮김. 반비. 1만8000원. 진선회기자

이 책 사진가 우희철의 ‘... 라오스’ “알 수 없는, 몰라도 되는 꽃청춘 그곳”



불교국가 라오스의 신년축제 분배마이.



그의 말처럼 라오스에 대한 인상은 젊은 배우들의 배낭여행을 그린 ‘꽃보다 청춘’ 방영 전후로 나뉜다. 태국, 베트남에 비해 낯설었던 그 나라가 어느새 방비엥과 팡시푼 등 ‘꽃청춘’의 낭만을 떠올리는 곳이 되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사진기자로 활약했고 지금은 7년째 라오스 살이를 하고 있는 우희철 사진가는 말한다. “라오스는 여행자로서 바라보면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라오스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보다 답답할 수 없고,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없는 불투명한 나라다.”

그가 ‘알 수 없는 라오스 몰라도 되는 라오스’를 통해 독자들을 그곳으로 안내한다. ‘한국·라오스 수교 25주년 기념 라오스 신(新) 인문지리서’란 부제가 달렸다.

소박한 풍경에 반한 나라 팬찮지 않아도 ‘버넝냥’ 7년살이 동안 만난 풍경

라오스에는 흔히 ‘은둔의 나라’, ‘미소의 나라’, ‘힐링의 나라’,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나라로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다. 불교국가로 1995년에 한국과 수교했다.

그가 라오스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버넝냥’이다. 우리말로 ‘팬찮다’, ‘상관없다’, ‘천만에’ 등으로 풀이되는데 라오스 사람들은 미안한 일이 있어도, 부담스러운 일에도,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도, 감사할 일에도 모두 ‘버넝냥’이라고 한다.

저자는 앞서 네 차례 라오스를 오가며 조용한 길거리와 소박한 시내 풍경에 반했다. 한순간에 그곳에 빠져버렸지만 막상 라오스를 알아갈수록 실망과 좌절, 후회가 일었다. 다시 한국이 그리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라오스에 익숙해져갔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에 쓰여진 이 책은 사진을 더해 라오스의 삶과 풍경을 가감없이 전한다. 알기 어려운 라오스, 이해할 수 있는 라오스, 흥겨운 라오, 불교와 생활, 가 봐야 할 곳, 라오스의 역사와 경제, 푸카오쿠아이 트레킹으로 나뉜 눈으로 보고 발로 디딘 현지 체험기를 담았다. 행복에너지. 2만5000원. 진선회기자

퇴계 영정 찾기로 시작된 초상화 이야기

배한철의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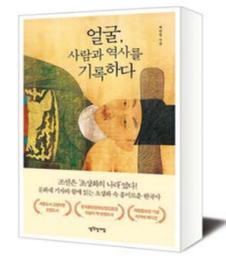
한 장의 사진은 백 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고 말한다. 옛 초상화도 그에 견줄 수 있다. 글자로 못다한 우리 역사 속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문화재 담당 기자로 현장을 누벼온 배한철의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는 ‘초상화의 나라’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역사의 단면을 들여다본 책이다. 오늘날 서울시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지녔던 한성판윤, 청백리로 탐관오리로 변하게 하던 평안감사 지위 등 다채로운 초상화 이야기를 더해 3년 6개월 여만에 개정증보판을 엮었다.

저자는 2014년 퇴계 이항을 재조명하는 기획 기사를 쓰면서 초상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우리가 늘 접하는 천원권 지폐에 담긴 퇴계

영정이 이유대 화백의 상상화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했기 때문이다. 익숙한 영정 말고 실제 퇴계의 초상화가 존재하지 않을까 호기심에 자료를 뒤졌지만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일제강점기 사람인 구도 다케조가 소장한 퇴계 초상화가 있었다. 그 초상화 속 퇴계는 특이하게도 사무라이 풍을 하고 있다. 퇴계의 학문이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 성리학의 뿌리가 되었고 일본인들이 이항을 특별히 흠모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정이 사라진 역사 속 인물은 또 있다. 충무공 이순신이다. 문헌을 뒤져보면 충무공의 얼굴을 묘사한 기록이 일부 발견된다. 그 기록은 5대손 이봉상, 7대손 이달해의 인상과 흡사하다. 그동안 초상화가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유



신은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냈는데 1926년 출간된 ‘조선명현초상화사집’ 맨 첫 장에 실려있었다.

초상화는 가려졌던 사실도 드러낸다. 드라마 등에는 내시들이 뽑은 관모를 쓰고 흉배 없는 관복을 입은 모습이 나오지만 선조 때 내시였던 김세진 초상화는 그와 달랐다. 수염만 없을 뿐 일반 문신과 똑같은 차림이었다. 생각정거장. 1만9500원. 진선회기자 sunny@ihalla.com



태양광 발전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usolar.co.kr